"명실상부 교통 중심도시"

익산 오산~영만 간 국대도 건설 속도… 지역균형발전 효과 기대

익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 역할을 견인할 오산-영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본격화한다.

6일 시는 이번 사업 용역을 올해 초에 조기착수하여 2023년 6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천 888억원을 투입하여 오산면 신지리 21번 국도에서 영만리의 23번 국도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7.05km로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되며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기재부 일괄 예타를 통과했으며 완공 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황등~오산 간 국대도, 서수~평장간 국대도와 맞물려 전북지역의 간선 도로축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과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산-영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시 건의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정헌율 시장이 2018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하고 민주당 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국회의원과 공조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 건설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익산을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총력

전문가 · 공무원 등 머리 맞대

익산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택림 부시장을 주재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9월 1차 보고된 신규사업과 추가로 발굴된 2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130억), △소프트웨어(SW) 미리채움 사업(64억), △스마트 전장부품 OPEN-R&D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445억),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117억원), 금마 전통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사업(120억원),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2,500억), 용안생태습지 연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3,000억),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600억) 등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열띤 기부행렬로 사랑의 온도 수직 상승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6일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대표 김준식)이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준식 대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내부 통신 배선 공사업체인 엔에이치네트웍스㈜(대표 이근신)도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근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성장해 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 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가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지만 대표는 "오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흥남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2년도 1분기 특화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웃과 함께 누리는 행복"

군산 흥남동 제4기 지사보 협의체, 새로운 출발

군산시 흥남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2년도 1분기 특화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어르신들의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도마의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도마 교체사업,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사랑의 책가방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사업, 2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흥봉이 밑반찬 지원사업 등 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후 4가지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 해 총 8건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146명을 지원했으며, 사업 예산은 착한 가게 및 흥남동 복지허브화 기금으로 지정 희망한 이웃돕기 기부자의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최정희 민간위원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흥남동 특색에 맞는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웃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흥남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실시

익산시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오는 1월 중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6곳, 보육 시설 2곳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연중 2회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충치가 있거나 치은염이 있는 원생의 경우 치과의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치석이 있는 원생에게는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원생에게 시린이 예방과 충치예방에 좋은 불소바니쉬(5%)를 이용한 불소도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해하기 쉬운 영상매체와 치아 모형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구강교육은 물론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구강보조용품을 이용한 구강관리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원생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게 되어 기쁘다"며 "익산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세금 고민해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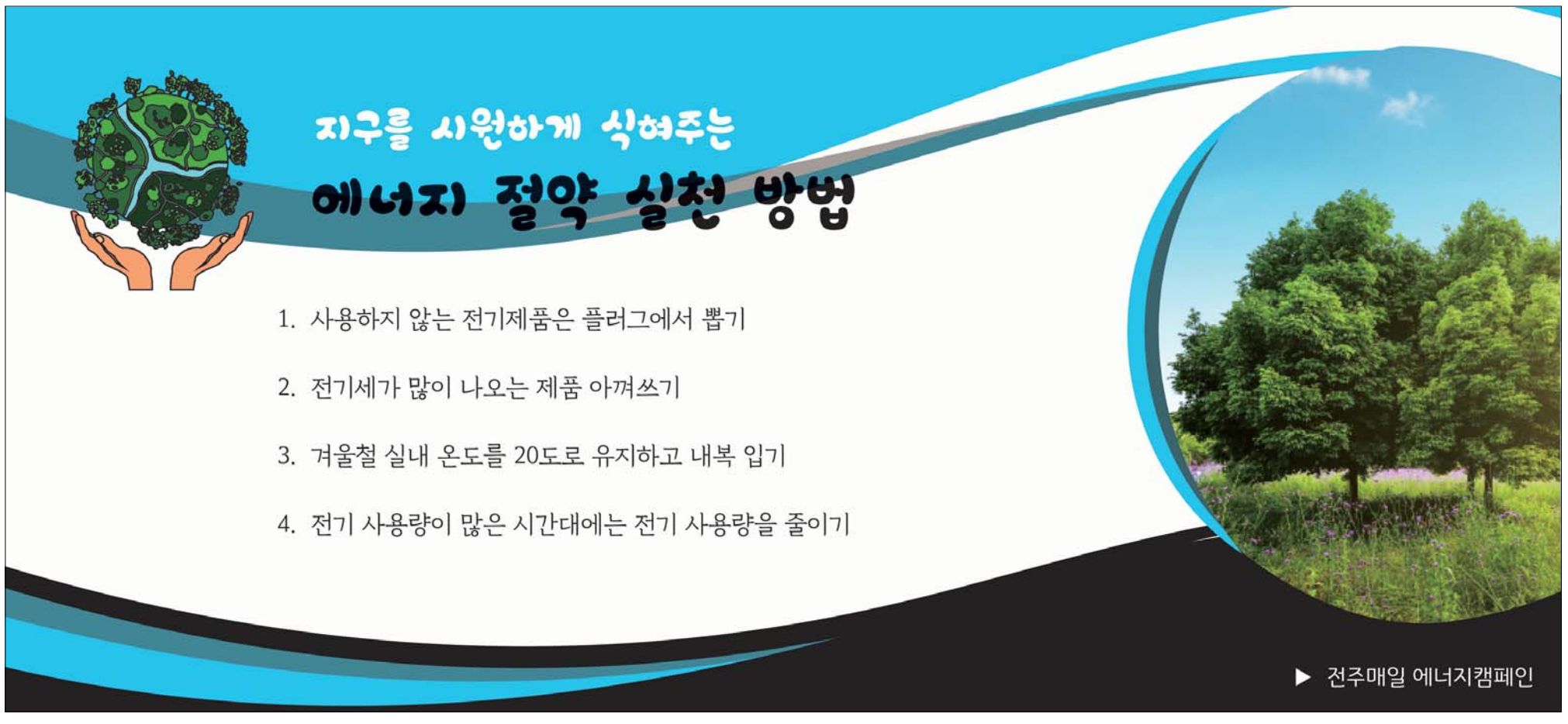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44개 단지에 87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며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2017~2021)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 주택행정과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군산=남현봉 기자